



태평염전 칠면초... "갯벌에 단풍 들었네" 21일 신안 증도 태평염전 습지를 가득 채운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있다. 칠면초는 한국과 일본의 바닷가 갯벌에서만 군생하는 한해살이 풀로, 봄부터 여름까지는 녹색 빛깔을 띠었다가 늦가을에 자색으로 변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군공항 이전 후보지 2개 군과 협의 진행

국방부, 적정성 등 검토 ... 연말까지 예비 후보지 선정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2개 군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4개 군을 대상으로 적정성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을 적정 지역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방문, 주민들의 찬반 정서를 비롯해 단체장 의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 등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4개 군 가운데 2개 군은 지역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들 군에서는 단체장이 국방부와의 면담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개 군에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 선정에 지역 여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사실상 예비 이전 후보지는 2개 군으로 압축될 모양새다. 시도 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를 감안할 경우 2개 지역 정도가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작성성, 적합성 검토와 함께 지역 여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km²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km²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열릴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발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말·연초로 순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전망과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다음다음 주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길 희망한다"고 말해 북미 간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市-勞, 광주형 일자리 최후의 '밀당'

광주시 "추가질의 오늘 답변 ... 노동계 불참 대비 대안 모색 중" 노동계 "현대차와 협상 내용 전면공개해야 최악의 사태 막아"

지역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이번주 그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 추가 질의에 대해 22일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노동계는 답변을 검토한 뒤 합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체육대회 장소를 찾는 등 시와 노동계의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현대자동차의 광주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노동계에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다른 대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2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마지막 노선인 이달 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 내로 지역노동계의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노동계의 전격 합류를 기대하면서도 끝까지 지역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유지할

경우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만에 국내 투자를 결정한 세계 굴지의 자동차기업인 현대차를 놓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20일 오전 한국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체육대회가 열린 KT&G 광주공장 운동장을 찾아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 의견을 모두 수용하겠다. 함께 같이 가자"며 "여러분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윤중해 의장 역시 역시 "광주형 일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감사하고 새로운 길을 같이 가자"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로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였던 양측이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협력을 약속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협상 마지노선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노동계에 대한 마지막 설득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노동계의 '협상 내용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 시가 "더이상 공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중해 의장은 2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가 22일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고 한만큼 조건만 충족된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협상에 합류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겠지만, (시가 지역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노동계와 시의 '밀고 당기기'가 이번주 어떻게 결문을 맺을 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계속 추진 여부, 노사민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노동계의 합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광주 투자를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주 초까지 지역노동계의 입장 발표를 기다린 뒤 불참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한전공대 부지 한전 결정에 따르겠다"

정치·지역적 고려 없이 선정 2022년 계획대로 개교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전으로 논란을 빚은 한전공대 부지 문제가 한전이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공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 개교해야 한다. 2040년까지 국내 최고, 2050년까지 세계 최고 공과대학을 목표로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문제를 한전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으로 지역 우려가 제기된 한전공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전공대 부지를 두고 광주시와 남구,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보고회를 통해 부지 선정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해 부지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 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전

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번 합의로 한전공대 부지는 한전 측이 결정하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한전공대 설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이 공동 행보를 취하면서 한전 측의 부담을 덜어줘 한전공대 설립의 큰 산을 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2022년 3월 개교, 학생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m²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안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The 25th Gwangju World Kimchi Festival ☀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
Kimchi Connects Us All!

제25회
2018광주세계김치축제

2018 10.25 목
▶ 28 일 4일간
광주김치타운 일원

개막식 10.25
홍진영 오후 7시
초청공연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제25회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 김치축제 홈페이지 www.kimchi.gwangju.go.kr 문의 062)613-6431~2

광주일보
 정후식이 만난 사람
 - 전남대 로스쿨 김이수 석좌교수 ▶5면
 kt 새 사랑탐에 이강철
 - 벌써 뜨거워지는 스토브리그 ▶20면

김이수 석좌교수 | 이강철 kt 감독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